

淋證의 病因病理 및 病症에 對한 文獻的 考察

崔仁求 · 金哲中*

I. 緒 論

淋病이란 小便이 淋瀝하고 澀痛하며 排尿가 困難한 症¹⁻⁶⁾으로 대개 頻尿 尿急 澀痛 等の 淋瀝不 斷한 諸症과 排尿障得를 指稱하니 甚하면 小腹의 弦急引痛이 併發하기도 한다¹⁻²⁾.

淋病의 淋字는 나무에서 물이 방울방울 떨어지는 形象을 描寫한 것으로 文獻上 淋, 淋瀝, 淋家, 淋證, 淋濁 等の 用語와 混用되고 있다¹⁻²⁾.

淋病에 對해 最初로 《內經》에서 淋, 淋瀝, 淋瀝 等으로 記述하였고⁷⁾, 醫家에 따라서 五淋이나 八淋으로 分類되어 그에 따른 辨證施治가 이루어졌으며 그 分類 內容으로 五淋은 ①勞淋 ②血淋 ③熱淋 ④氣淋 ⑤石淋이며, 여기에 膏淋, 沙淋, 冷淋을 合하면 八淋이 된다¹⁻³⁾.

淋病은 尿頻, 尿急, 尿痛, 尿意不盡 等の 膀胱刺 劇症狀의 臨床表現이나 現代의 腎盂腎炎, 膀胱炎, 腎結核, 泌尿系統結石, 膀胱癌 및 乳糜尿 等の 病症에 該當한다^{3,6)}.

最近 들어 泌尿生殖器系의 感染으로 因한 疾患이 增加하는 趨勢에 있으나 그에 대한 뚜렷한 治療方法이 提示되지 못해 韓方治療에 대한 要求가 늘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韓方의인 具體的인 理論的 考察도 完全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狀態인 듯하다.

이에 著者는 五淋을 中心으로 治療對策을 摸索하고자 病因病理 및 病症에 對한 歷代文獻의 考察을 통하여 整理 檢討한 바 若干의 知見을 얻었기에 報告하는 바이다.

II. 本 論

1. 諸病源候論⁸⁾

諸淋者, 由腎虛而膀胱熱故也. 膀胱與腎爲表裏, 俱主水……小便出少氣數 小腹弦急 痛引於臍……水下澀數 淋瀝不宣……又有石淋, 勞淋, 血淋, 氣淋, 膏淋.

石淋 腎虛爲熱所勝……小便卽莖裏痛 尿不能卒出 痛引少腹膀胱裏急砂石從小便道出 甚者塞痛令悶絕

氣淋 腎虛膀胱熱 氣脹所爲也……膀胱小腹皆滿 尿澀 常有餘瀝

膏淋 腎虛不能制約肥液……淋而有肥 狀似膏

勞淋 勞傷腎氣而 生熱成淋……尿留莖內 數起不出 引少腹痛 小便不利 勞倦卽發

熱淋 三焦有熱 氣搏於腎 流入於胞……小便赤澀 赤有宿病淋 今得熱而發 其甚則 變尿血亦有小便後 如似小豆汁狀 蓄作有時

血淋 心主血 血之行身 通遍經絡 循環臟腑 其熱甚者 則實其常 經溢滲入胞……熱淋之甚者則尿血

寒淋 腎氣虛弱 下焦受於冷氣入胞 與正氣交爭……先寒戰 然後尿

2. 備急千金要方⁹⁾

論曰 熱結中焦則 爲堅, 熱結下焦則 爲溺血 令人淋閉不通……凡氣淋之爲病 尿難澀 常有餘瀝 石淋之爲病 莖中痛溺不得卒出 治之如氣淋也 膏淋之爲病 尿似膏自出 治之如氣淋也 勞淋之爲病 勞倦卽發痛引氣衝下 治如氣淋同熱淋之爲病 熱卽發 甚則尿血 餘如氣淋方

凡人候鼻頭色黃法 小便難也 治下焦結熱 小便赤黃不利數起出少 莖痛或血出 溫病後餘熱及霍亂後當風取熱 過度飲酒房勞 及行步冒熱冷飲逐熱 熱結下

*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腎系內科學教室

焦及散石熱動關格 小腹堅胞脹如斗 諸有此淋皆悉治之立驗地膚子湯方

3. 儒門事親¹⁰⁾

砂石淋

此乙木之病 非小腸與腎也 木爲所抑 火來乘之 故熱在脬中 下焦爲之約 結成砂石……

4. 丹溪心法附餘¹¹⁾

淋者五皆屬乎熱……戴云淋者小便淋瀝歡去不去不去又來皆屬於熱也

5. 聖濟總錄¹²⁾

【諸淋總論】

論曰膀胱者 州都之官 津液藏焉 氣化則能出矣 位處下焦 與腎爲表裏 分別清濁 主出而不內 若府藏氣虛 寒熱不調 使氣不和而水道不宣 故爲淋瀝之病矣 諸淋之證 大體緣腎氣虛 膀胱有熱 唯冷淋爲異 善治此者 當熟察之

【卒淋】

論曰卒淋者 緣下焦有熱 傳入膀胱 其候卒然少腹急痛 小便淋數澀痛 故謂之卒淋 蓋下焦在臍下 當膀胱上口 主分別清濁 主出而不主內 以傳導也 今熱在下焦 故其病如此

【冷淋】

論曰腎與膀胱爲表裏 下通于胞 宣行水道 腎藏虛弱 冷氣客于下焦 邪正交爭 滿于胞內 水道不宣 故其狀先寒顫 然後便溺成淋 謂之冷淋也

【熱淋】

論曰三焦者水穀之道路也 三焦壅盛 移熱于膀胱 流傳胞內 熱氣并結 故水道不利而成淋也 其狀溲便赤澀 或如血汁 故謂之熱淋

【氣淋】

論曰腎虛則不能制小便 膀胱挾熱則水道澀 腎虛膀胱熱 則胞內氣脹 小腹堅滿 而生淋澀之病也 其候出少喜數 尿有餘瀝是也 亦曰氣癰 診其脈 少陰脈數者 則爲氣淋

【血淋】

論曰心主血氣 通小腸與膀胱 俱行水道 下焦受熱 則氣不宣通 故溲便癰閉而成淋也 熱甚則搏于血脈 血得熱則流行入于胞中 與溲便俱下 故爲血淋也

【膏淋】

論曰膀胱爲滲泄之府 腎氣均平 則溲便清 腎氣既

虛 不能制其肥液 故與小便俱出 色若脂膏 故謂之膏淋 又曰肉淋

【石淋】

論曰石淋者 淋病而有沙石 從小便道出也 蓋有腎氣虛損 則飲液停聚 不得宣通 膀胱客熱 則水道澀痛 胞內壅積 故令結成沙石 隨小便而下 其大者留碍水道之間 痛引少腹 令人悶絕

【勞淋】

論曰人因勞傷腎經 腎虛膀胱有熱 氣不傳化 小便淋瀝 水道澀痛 勞倦即發 故謂之勞淋 少腹引痛者是其候也

6. 醫學入門¹³⁾

五淋氣血石膏勞

淋小便澀痛欲去不去不去又來滴滴不斷

氣淋澀滯餘瀝不盡…

血淋澀痛遇熱則發…

石淋溺有砂石莖強痛甚…

膏淋血凝如膏…

勞淋痛引氣衝遇勞則發痛墜及尻…

熱淋暴淋痛甚…

冷淋必先寒慄而後溲便澀數竅中腫痛…

淋皆屬熱間有冷者外因當風取涼冒暑濕熱鬱滯胞內 痿痺神不應用內因七情心腎氣鬱小腸膀胱不利或忿怒房勞忍溺酒肉濕熱下流膀胱干于肝經鬱結初則熱淋血淋久則火燄爲砂石淋…

渴不渴間差釐毫

熱在上焦氣分渴而小便不利者肺中伏熱水不能降…

熱在下焦血分不渴而小便不利者腎與膀胱無陰而陽氣不化水枯火升…

7. 東醫寶鑑¹⁴⁾

【여러 가지 임병】

임병에 걸리면 오줌에 좁쌀알 같은 것이 섞여 나오고 아랫배에서 배꼽까지 켤기면서 몹시 아프다.

여러 가지 임병은 다 신이 허하고 방광에 열이 있기 때문에 생긴다. 심과 신의 기운에 하초에 물리면 방광 속이 켤기고 기름이나 피, 모래알 같은 것이 오줌길로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나오려다가 나오지 못하면 오줌이 짙글짙끔 그치지 않고 나온다. 그리고 심하면 오줌길이 꼭 막혀서 까무러치

기도 한다.

대체로 소장에 기가 있으면 오줌이 많아지고 소장
에 열이 있으면 오줌이 잘 나오지 않는다. 소장에
열이 있으면 오줌을 늘 때에 아픈데 아픈 것은
혈림이다. 아프지 않은 것은 피오줌증이다. 정이
상하여 멍치면 사림이 생기고 멍쳤던 정이 풀려
나오면 고림이 생긴다. 광물성 약재의 성분이 멍
치면 석림이 생긴다.

【임병에는 5가지가 있다.】

첫째는 노림, 둘째는 혈림, 셋째는 열림, 넷째는
기림, 다섯째는 석림이다.

【임병에는 8가지가 있다.】

5가지 임병에 또 고림, 사림, 냉림이 있어서 8가
지가 된다.

8. 外臺秘要¹⁵⁾

病源諸淋者由腎虛而膀胱熱故也 膀胱與腎爲表裏
俱主水 水入小腸下於胞行於陰爲溲便也 腎氣通於陰
陰津液下流之道也 若飲食不節喜怒不時虛實不調則
腑臟不和致腎氣虛而膀胱熱也 膀胱津液之腑熱則津
液內溢而流於畢水道不通水不上下停積於胞腎虛則
小便數膀胱熱則水下澁數而且澁則淋瀝不宜故謂之淋
其狀小便出少起數少腹弦急痛引於臍又有石淋勞淋血
淋氣淋膏淋

9. 證治彙補¹⁶⁾

氣淋澁滯餘瀝不斷 血淋溺血遇熱則發 石淋莖痛溺
有砂石又名砂淋 膏淋稠濁凝如膏糊又名肉淋 勞淋遇
勞即發痛引氣衝又名虛淋

10. 醫學心悟¹⁷⁾

熱淋

淋者小便頻數 不能流通 溺已而痛是也 大抵由膀
胱經濕熱所致 然淋有六種 一曰石淋 下如砂石 ……
二曰膏淋 滴下濁液 如脂膏也……三曰氣淋 氣滯不
通 水道阻塞 臍下妨悶脹痛也……四曰血淋 瘀血停
滯 莖中割痛難忍是也……五曰勞淋 勞力辛苦而發
此爲氣虛 以致氣化不及州都……六曰冷淋 寒氣堅閉
水道不行 其症四肢厥冷 口鼻氣冷 喜飲熱湯是
也……

11. 張氏醫通¹⁸⁾

石淋者臍腹隱痛小便難痛不可忍澀 如砂石或黃赤
或混濁色澤不定……

勞淋者遇勞即發小便淋瀝不絕 如水滴瀝而不斷 有
脾勞腎勞之分……

血淋者雖主實主血而與小腸爲表裏 然須看血色分
冷熱 色鮮紫者爲小腸實熱 小腸熱甚而血滲胞中與溲
俱下……

氣淋者氣化不及州都胞中氣脹小腹滿堅溺有餘瀝…
…

膏淋者儼若脂膏或便中有如蠅蛆之狀此名肉淋乃精
溺俱出精塞溺道故便欲出不能而痛……

冷淋者寒氣客於下焦水道不宜滿於胞內淋瀝而白
先發寒慄而後便數成淋……

熱淋者心肺蘊熱不能滋其化源小便赤澁如血而少…
…

12. 醫宗金鑑¹⁹⁾

【淋證總括】

諸淋皆緣寒熱濕 下移膀胱溲無時 水道澀滯常作痛
寒熱石血隨證醫

【寒淋】

冷氣入胞成寒淋 小便閉塞脹難禁 淋漓不斷腹隱
痛……(註)寒淋者皆因風寒乘入膀胱致下焦冷遂成寒
淋其候小便閉塞脹痛難禁不時淋漓小腹隱痛……

【熱淋】

膀胱蓄熱淋證成……小腹脹滿大便結……(註)熱淋
者膀胱蓄熱而成也小便不通淋漓澀痛……若小腹脹滿
引臍作痛大便秘結者……

【石淋】

濕熱蓄久石淋成 溲如沙石莖中疼……(註)石淋者
逢溺則莖中作痛常帶沙石之狀因膀胱蓄熱日久所致正
如湯瓶久經火煉底結白礫也……

【血淋】

血淋心熱傷血分 尿血同出莖中疼……(註)血淋者
皆因心熱傷於血分熱氣傳入於胞日久則尿血同出遂成
血淋莖中不時作痛……

13. 萬病回春²⁰⁾

氣淋者小便澁常有餘瀝也 沙淋者莖中痛努力如沙
石也 血淋者尿血結熱莖痛也 膏淋者尿出似膏也 勞
淋者勞倦即發也 五淋者皆膀胱蓄熱也 五淋者因酒色
勞力傷腎虛中有熱也

14. 醫宗必讀²¹⁾

內經曰脾受積濕之氣小便黃赤甚則淋 風火鬱於上

而熱其病淋

愚按內經言淋濕與熱兩端而已 病源論謂膀胱與腎爲表裏但主水火入小腸與胞行於陰爲澀便也 若飲食不節喜怒不時虛實不調臟腑不和 致腎虛而膀胱熱腎虛則小便數膀胱熱則水下澀 數而且澀則淋澀不宜小腹弦急痛引於臍 分石淋勞淋血淋氣淋膏淋冷淋六種石淋者有如沙石膀胱蓄熱而成正如湯瓶久在火中底結白礫也 勞淋者因勞倦而成多屬脾虛 血淋者心主血心遺熱於小腸搏於血脈血入胞中與澀俱下 氣淋者肺主氣氣化不及州都胞中氣脹小腹滿堅溺有餘澀 膏淋者滴下肥液極類脂膏 冷淋者寒客下焦水道不快先見寒戰然後成淋 更有過服金石入房太甚敗精強閉流入胞中 亦有濕痰日久注滲成淋 由是則致淋之故殆有多端若不求其本末未有獲痊者也

15. 類證治裁²¹⁾

諸淋 皆腎虛膀胱生熱 故小水澀而不利也 …… 淋而渴 屬上焦氣分 …… 淋而不渴 屬下焦血分 …… 如肺燥不能生水者 …… 心火及小腸熱者 …… 肺脾積熱 …… 移於膀胱者 腎水虧 …… 小便赤澀者 …… 砂淋膀胱澀痛者 …… 勞淋脾腎不足者 …… 血淋莖中熱痛者 …… 溺澀不痛者 …… 氣淋臍下妨悶 …… 膏淋乃精溺並出 精塞溺隧 故小便澀痛 …… 冷淋寒客胞中 欲溺先發寒慄 …… 熱淋溺赤如血而少 …… 時煩渴者 …… 伏暑成淋 …… 虛者 …… 因怒致淋 …… 因思慮成淋 …… 暑月汗多 …… 津液不降 …… 妊婦病淋

16. 醫學正傳²³⁾

《內經》曰：飲食入胃，流溢精氣，上輸于脾，脾氣散精，上歸于肺，通調水道，下輸膀胱。夫膀胱者，主足太陽寒水之化，其體有下口而無上口者也。長生在申，是故西方肺金以爲之母而資其化也。肺金清肅，則水道通調而滲營于下耳。然肺金又借脾土健旺，以資化原，而清氣得以上升，而歸于肺以運行也。故經又曰：清陽出上竅，濁陰出下竅。故清陽不升，則濁陰不降，而成淋閉之患矣。先哲以滴水之器譬之，上竅閉則下竅不出，此理甚明。故東垣使灸百會穴，丹溪使吐以提氣氣之橫格，是皆開上竅之法也。原其爲病之由，皆膏粱之味，濕熱之物，或燒酒炙肉之類，鬱遏成痰，以致脾土受害乏力，不能運化精微，清濁相混，故使肺金無助，而水道不清，漸盛淋閉之候。或謂

用心太過，房勞無節，以致心腎不交，水火無制，清陽不升，濁陰不降，而成天地不交之不，皆先哲之法言也。古方有五淋之別，氣，砂，血，膏，勞是也。若夫氣淋爲病，小便澀滯，常有餘澀不盡。砂淋爲病，陰莖中有砂石而痛，溺不即得出，砂出痛止。膏淋爲病，痛引氣衝。血淋爲病，遇熱則發，甚則溺血。候其鼻準色黃者，知其爲小便難也。東垣分在氣，在血而治之，以渴與不降以辨之耳。如渴而小便不利者，熱在上焦氣分，肺金主之，…不渴而小便不利者，熱在下焦血分，腎與膀胱主之，…

17. 醫門寶鑑²⁴⁾

淋者小便痛澀淋澀之謂也原其所由膏粱之味濕熱之物過多或用心太過房慾無節以致心腎不交水火無制而成其證或有流如膏液者或有出如砂石者或有如筋條者或有溺血者

一曰氣淋者小便澀滯常有餘澀不盡小腹脹滿此因氣鬱心腎蓄在下焦也

一曰血淋者小便不出時下血疼痛滿急遇熱則發此血結血於之致也

一曰膏淋者尿出如膏莖中澀痛…肝經濕熱者…腎虛有熱者…

一曰砂石淋者莖中有砂石澀痛尿不得卒出小腹膨脹急痛砂出痛止此因膀胱陰火煎熟津液凝結而成輕則爲砂重則爲石

一曰勞淋者小便不出小腹急痛痛引氣衝痛墜及尻遇勞則發…血虛而有熱者…縱欲強留不泄淫精滲下而作者…中氣既弱不能運通水道下輸膀胱者…脾濕盛而水濁者…

一曰熱淋者暴淋痛甚…熱毒蘊結臟腑而實者…熱在上焦氣分而渴者…熱在下焦血分而不渴者…

一曰冷淋者必先寒慄而後澀便澀數窺中腫痛此因冷氣與正氣交爭冷勝則寒戰成淋正勝則寒戰解而得便溺也

18. 醫學門徑²⁵⁾

淋之爲病，小便澀少，莖中作痛，腎與膀胱，相爲表裏，腎陰虧損，膀胱蓄熱，水下數澀，淋漓不快，痛引於臍。一曰氣淋，胞中氣脹，少腹滿堅，溺有餘。二曰血淋，心熱遺府，血入胞中，與水俱下。三曰沙淋，膀胱積熱，水道澀痛，類下砂石。四曰膏淋，滴下肥液，極類脂膏，欲出痛澀。五曰勞淋，勞倦而成，痛引氣

衝。屬於脾胃。淋雖有五。皆屬於熱。…風寒濕邪。客於胞中。氣不能化。亦澁不通。

19. 東醫臨床要覽²⁶⁾

淋證은 이른바 泌尿器系感染症·泌尿器系結石 및 乳糜尿와 前立線炎 등의 여러 가지 疾病을 包括하고 있는 것으로서, 五種의 淋證이 각각 다른 原因을 가지고 있으나, 대개는 腎虛한 데다가 濕濁이 下注하여 氣化가 不利한 所致인 것이다. 1) 石淋은 小便이 잘 배출되지 않고 아프며 臍腹이 隱痛하고, 尿에 砂石이 섞여 나와 痛症이 참을 수 없을 정도인데 排出後에는 약간 緩和되며, 尿色은 黃赤, 或은 混濁, 或은 色澤이 일정하지 않으며, 2) 氣淋은 少腹이 滿痛하고 小便이 澀滯되며 대개 餘瀝이 남는 경우는 實證, 排尿時에 小腹이 墜脹하고, 裏急後重하는 경우는 虛證이 된다. 3) 血淋은 尿中에 血이 섞여 나오는데, 疼痛滿急하며, 血色이 紅紫色인 경우는 實證이고, 血色은 淡紅하며 排尿時에 疼痛이 그다지 심하지 않은 경우는 虛證이 된다. 4) 膏淋은 尿가 마치 油膏처럼 混濁하게 나오며, 莖中이 澁痛하는 경우는 實證이나, 膏淋이 오래되어 形體가 消瘦되고, 排尿時에도 대개 作痛하지 않는 경우는 虛證이 된다. 5) 勞淋은 小便이 淋瀝不絶하며, 小腹이 墜脹하고, 身軟疲憊되는데, 힘든 일을 하면 곧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脾虛가 되고, 腰膝이 酸軟하고 頭暈 및 耳鳴의 증세가 나타나는 경우는 腎虛가 된다.

20. 中醫診斷學²⁷⁾

…淋者小便滴瀝澁痛, …

淋與濁, 古分五淋二濁, 淋의 發病原因, 則皆由陰陽乖戾, 清濁相干, 或膀胱蓄熱, 水道瘀寒, 所以欲通不通, 滴瀝澁痛. …

淋則小便澁痛, 欲去不去, 不去又來, 滴瀝不斷, 甚則悶塞.

淋: 分五淋. 氣淋, 小便澁滯, 餘瀝不斷, 血淋, 溺血, 遇熱則發, 石淋, 又名砂淋, 溺時莖中痛, 溺有砂石, 膏淋又名肉淋, 溺甚稠濁, 凝如膏糊, 勞淋又名虛淋, 遇勞即發, 痛引氣衝. 淋雖有五, 總屬於熱. 但亦有由于寒邪客于胞中, 氣不化而成淋, 其症先寒慄, 而後溺數而澁, 竅中腫痛者, 爲冷淋之病.

21. 實用中醫內科學³⁾

【熱淋】

[症狀]: 小便頻數, 点滴而下, 尿色黃赤, 灼熱刺痛, 急迫不爽, 痛引臍中, 或伴腰痛拒按, 或現寒熱口苦, 惡心嘔吐, 或兼大便秘結, 苔黃膩, 脈濡數.

[病機分析]: 濕熱毒邪, 客于膀胱, 氣化失司, 水道不利, 是熱淋的主要病機. 皆火性急迫, 故澀頻而急, 濕熱壅遏, 氣機失宣, 故尿出難澁, 灼熱刺痛, 濕熱蘊蒸, 故尿黃赤, 上犯少陽, 而現寒熱起伏, 口苦嘔惡, 熱甚波及大腸, 則大便秘結, 苔黃膩, 脈濡數, 均系濕熱爲病之.

【血淋】

[症狀]

實證: 尿色紅赤, 或挾紫暗血塊, 澀頻短急, 灼熱痛極, 澀澁不利, 甚則尿道滿急疼痛, 牽引臍腹. 舌尖紅, 苔薄黃, 脈數有力.

虛症: 尿色淡紅, 尿痛澀澁不著, 腰痠膝軟, 五心煩熱. 舌紅少苔, 脈細數.

[病機分析]: 血淋是熱傷陰絡, 滲入膀胱而成. 前人有血淋爲熱淋之甚者的說法, 此是指血淋的實證而言, 多與心與小腸的病變有關. 夫心爲火臟, 主血脈而合小腸, 心火熾盛, 移于小腸, 熱迫膀胱, 血熱傷絡, 故血與澀俱下, 血淋乃作.

【氣淋】

[症狀]

實證: 小便澀澁, 淋瀝不暢, 餘瀝難盡, 臍腹滿悶, 甚則脹痛難忍. 脈沈弦, 苔薄白.

虛症: 尿頻澀清, 澀澁不甚, 餘瀝難盡, 小腹墜脹, 空痛喜按, 不耐勞累, 面色白光白, 少氣懶言. 舌質淡, 脈虛細無力.

[病機分析]: 肝主疏泄, 其脈循小腹, 絡陰器, 肝鬱氣滯, 鬱久化火, 氣火鬱于下焦, 或兼濕熱侵襲膀胱, 壅遏不能宣通, 故臍腹滿悶, 脹痛難澀, 小便澀澁淋瀝. 此爲實證.

如病久不愈, 或過用苦寒, 疏理之劑, 耗氣傷中, 脾虛氣陷, 故小腹墜脹, 空痛喜按, 氣虛不能攝納, 故澀頻尿清而有餘瀝, 不能運行水液, 故小便澀澁不利. 是爲氣淋之屬虛者.

【石淋】

[症狀]

實證: 尿中時夾砂石, 小便澀澁不暢, 或尿不能卒

出，窘迫難忍，痛引少腹，或尿時中斷，或腰痛如絞，牽引少腹，連及外陰，尿中帶血。苔薄白或黃，脈弦或數。

虛實挾雜證：病久砂石不去，伴見少腹空痛，少氣無力，或舌紅少苔，手足心熱，或腰痠隱痛，脈細而弱。

[病機分析]：濕熱下注，化火灼陰，煎熬尿液，結為砂石，淤積水道，而為石淋。積于下則膀胱氣化失司，尿出不利，甚則欲出不能，窘迫難受，痛引少腹。滯留于上，則影響腎臟司小便之職，鬱結不得下泄，氣血滯澁，不通則痛，由腎而波及膀胱，陰部。砂石傷絡則為尿血。

病久傷及正氣，或為氣虛，或為陰虛，或為腎氣不足，但砂石未去，故為虛實挾雜之證。

【膏淋】

[症狀]

實證：小便混濁不清，呈有糜色，置之沈淀如絮狀，上有浮油如脂，或夾凝結，或混血液，尿時不暢，灼熱疼痛。舌質紅，苔黃膩。

虛證：病久不已，或反復發作，淋出如脂，澁痛不著，形體瘦消，腰痠膝軟，頭昏無力。舌淡苔膩，脈細數無力。

[病機分析]：下焦濕熱，阻于絡脈，脂液失其常道，流注膀胱，氣化不利，不能分清泌濁，故尿液混濁如膏，便時不暢。屬于實證。

病久腎氣受損，下元不固，不能制約脂液，故淋出如脂。伴見形瘦乏力，腰膝痠軟等虛象。

【勞淋】

[症狀]：病程較長，綿綿難愈，時輕時重，遇勞加重或誘發。尿液赤澁不甚，溺通不著，淋瀝不已，餘瀝難盡，不耐勞累。苔薄，脈細。

《顧松園醫鏡·淋》說：勞淋“宜辨其因心勞，脾勞，腎勞之不同”。

腎勞 與房勞有關。兼見腰痛綿綿，小便頻數，尿有熱感，五心煩熱，舌紅少苔，脈細或數者為腎陰不足。腰膝痠軟，尿頻清長，面色白光白無華，面浮肢緊，脈細或沈，舌淡苔薄白者，為腎氣虛。並見畏寒怯冷，四肢不溫者，為腎陽虛。

心勞 可因思慮勞心而加重。伴見小便滯澁，尿意不盡，少腹微脹，心悸短氣，困倦乏力，口乾舌燥，失眠

多夢，舌尖紅，苔薄白，脈細或數等氣陰不足，虛熱內生證象。

脾勞 遇勞倦則病程加重。少腹墮脹，迫注肛門，便意不盡，小便點滴而出，精神困憊，少氣懶言。脈細，苔薄白。

[病機分析]：淋證日久，或病程反復，邪氣傷正，或過用苦寒清利，損傷正氣，轉為勞淋。而房勞傷腎，思慮勞倦傷心脾，正氣益虛，遂使病程加重。夫腎虛則小便失其所主，脾虛氣陷則小便無以攝納，心虛則水火失制，心腎不交，虛火移于膀胱，小便失制，勞淋諸證由之而作。

此外，還有一種冷淋，也名寒淋，除了淋證的一般症狀外，伴有口鼻氣冷，喜飲熱湯，肢厥喜溫，先寒慄而後溲便等虛寒證狀。系因腎氣虛弱，復感寒邪，膀胱虛冷，氣化失司使然。與前述各種淋證不同，為淋證之特殊者。如《諸病源候論·諸淋病候》說：“寒淋者，……由腎氣虛弱，下焦受于冷氣，入胞與正氣交爭，寒氣勝則戰寒而成淋”

III. 總括 및 考察

淋病이란 小便이 淋瀝하고 澀痛하며 排尿가 困難한 症으로 배뇨가 곤란한 증이다.¹⁻⁶⁾ 또한 대개 頻尿 尿急 澀痛 等の 淋瀝不斷한 諸症과 排尿障碍를 指稱하니 甚하면 小腹의 弦急引痛이 併發하기도 한다¹⁻²⁾.

淋病은 現代醫學의 으로 腎盂腎炎, 膀胱炎, 腎結核, 泌尿系統結石, 膀胱癌 및 乳糜尿 等の 病症에 該當한다^{3,6,26)}.

歷代 淋病의 病因病理를 살펴보면 巢⁸⁾는 諸淋의 病因이 腎虛, 膀胱有熱이라 하고 다시 淋病을 8種으로 分類하였다. 張¹⁸⁾도 역시 巢⁸⁾와 같이 8淋으로 分類하였다.

孫⁹⁾과 朱¹¹⁾는 熱結下焦로 因해 溺血이 되고, 사람으로 하여금 淋閉不通하게 한다고 하면서 五淋의 分類法을 擇하였다. 後代의 李 등^{13,15-17,20-22,25)}도 역시 이와같이 五淋으로 分類한 醫家들이다.

張¹⁰⁾은 砂石淋을 말하면서 이는 小腸과 腎의 病이 아닌 木鬱로 因한 것으로 보았다.

趙¹²⁾는 巢⁸⁾의 病因을 따르면서도 오직 冷淋은 冷氣가 下焦에 머무른 것으로 보았으며, 아울러 卒淋에 대해 말하면서 이 역시 下焦熱이 그 原因이라 하였다.

李¹³⁾는 五淋을 氣血石膏勞로 分類하면서 그 外因으로는 “當風取涼冒暑濕熱鬱滯胞內痿痺神不應”이라 하고, 內因으로 “七情心腎氣鬱小腸膀胱不利或忿怒房勞忍溺濁肉濕熱下流膀胱干於肝經鬱結”라 하여 內因과 外因을 區分하였고, 初期에는 熱淋血淋이고, 오래되면 砂石淋이 된다고 하여 病程에 따라 다시 한번 나누었다.

許¹⁴⁾는 淋病의 病因을 腎虛膀胱熱, 小腸有熱로 보면서, 勞淋, 血淋, 熱淋, 氣淋, 石淋의 5淋으로 區分하고 이에 膏淋, 砂淋, 冷淋을 더하여 8淋으로 다시 細分化하였다.

程¹⁷⁾은 淋病을 크게 熱淋과 冷淋으로 區分하면서 五淋은 熱淋에 屬하는 것으로 보았다.

吳¹⁹⁾는 寒熱濕이 膀胱으로 들어가 水道가 澀滯한 것으로 보아 寒淋, 熱淋, 石淋, 血淋으로 大別하였다.

龔²⁰⁾은 五淋의 原因으로 膀胱蓄熱과 酒色勞力을 言及하면서 特히 此로 因한 虛中有熱임을 말하였다.

林²²⁾과 虞²³⁾는 渴不渴을 言及하면서 渴者는 上焦氣分에 屬하며, 不渴者는 下焦血分에 屬한다고 하였다.

近來의 金²⁶⁾은 淋病이 現代醫學의 泌尿器系感染症·泌尿器系結石 및 乳糜尿와 前立腺炎 등의 여러 가지 疾病을 包括하고 있는 것으로서, 先代의 五種의 淋證이 각각 다른 原因을 가지고 있으나, 대개는 腎虛한 데다가 濕濁이 下注하여 氣化가 不利한 所致인 것이라고 하였다.

鄧²⁷⁾은 淋濁癰閉를 分類하면서 淋은 發病의 原因이 陰陽乖戾, 膀胱蓄熱, 水道瘀塞으로 보았다.

方³⁾은 淋病을 區分함에 있어서 虛實鑑別을 重히 여겼고 이를 위해 病程을 基準으로 新病은 實에 屬하며 膀胱濕熱이라 하고 久病은 虛에 屬하며 心脾腎의 虛損이라 하였고, 水道不利症狀, 尿痛의 有無도 또한 虛實鑑別의 重要한 基準으로 삼았다.

以上으로 보아 淋病은 濕熱이 主가 되며 病位는

腎과 膀胱에 있다. 發病初期에는 邪實證이 많고 慢性으로 갈수록 虛證으로 移行되며 邪氣가 未盡한 狀態에서 正氣가 損傷되어 虛實錯雜證이 나타나기도 한다.

淋病의 病症을 살펴보면 많은 歷代醫家들^{3,13,15-17,19-22,25,27)}이 五淋으로 分類하면서 血淋은 小便淋瀝澀痛, 小腹滿急, 遇熱即尤甚한 것으로, 程^{17,19,22)}은 熱澀莖痛을 追加하였고, 近來 中醫^{3,26)}에서는 尿色鮮紅은 實證이며 尿色淡紅은 虛證이라 하였다. 熱淋은 小便色黃赤, 排尿時熱痛, 灼熱痛한 것으로 吳¹⁹⁾는 大便秘結하다고 附言하였고, 方³⁾은 寒熱, 惡心嘔吐 등의 全身症狀를 同伴하기도 한다고 말하였다. 氣淋은 排尿澀滯不快, 餘瀝未盡한 것으로 程¹⁷⁾은 臍下妨悶脹痛하다고 하였고, 近來^{3,26)}에는 實證은 脹痛難忍하고 虛證은 小腹墜脹, 空痛喜按, 面色白光白, 少氣懶言하다고 하였다. 石淋은 小便刺痛, 窘迫難忍, 尿中挾砂石한 것으로, 孫⁹⁾은 莖中痛溺不得卒出이라 하였고, 趙¹²⁾는 令人悶絕이라 하였으며, 朱²⁴⁾는 輕則爲砂, 重則爲石이라 하였고, 方³⁾은 實證은 尿時中斷, 腰痛如絞, 莖引小腹하고 虛證은 小腹空痛, 少氣無力하다고 하였다. 勞淋은 小便不利, 痛而不甚, 淋瀝不已, 時作時止, 遇勞即發한 것으로, 趙¹²⁾는 小腹引痛이 特徵이라 하였고, 李¹³⁾는 痛引氣衝이라 하였으며, 張¹⁸⁾은 脾虛는 遇勞即發하고 腎虛는 腰膝酸軟, 頭暈, 耳鳴하다고 하였고, 方³⁾은 腎勞는 面色白光伯無華, 面浮肢緊하면 腎氣虛이고 畏寒怯冷, 四肢不溫하면 腎陽虛라 하였고 心勞는 思慮傷心으로 口乾舌燥 등의 虛熱症狀이 있고 脾虛는 精神困憊, 少氣懶言하다고 하였다.

IV. 結 論

以上으로 淋病에 대해 살펴본 結果 五淋의 病因, 病理, 病症에 對해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을 수 있었다.

1. 血淋은 陰虛火動, 下焦濕熱로 傷陰絡한 것이며, 그 病症은 小便熱澀刺痛, 尿色紫紅, 尿中有血絲血塊, 小腹疼痛, 腰部酸痛하다.

2. 熱淋은 壅結濕熱毒邪, 蘊蓄下焦濕熱로 發病하는 것이며, 그 病症은 小便刺痛, 尿短澁, 尿頻, 尿急, 尿道灼熱하다.

3. 氣淋은 肝氣鬱滯不通, 中氣不足膀胱鬱滯된 것이며, 그 病症은 小便澁滯作痛, 小腹滿痛, 脇肋脹痛하다.

4. 石淋은 結石으로 誘發되는 것이므로 濕熱化火하여 尿液을 煎熬한 結果이며, 그 病症은 小便刺痛, 窘迫難忍, 尿中有砂石, 尿色黃赤, 甚則腰腹絞痛, 尿中帶血하다.

5. 勞淋은 淋病이 오랫동안 不愈하여 正氣를 損傷하거나 苦寒清利之劑를 過用하거나 房勞傷腎, 思慮勞倦傷脾한 것이며, 그 病症은 小便不利, 痛不甚, 淋瀝不已, 時作時止, 遇勞即發, 神疲倦怠, 腰膝痠軟, 少氣懶言하다.

參 考 文 獻

1. 杜鎬京 : 東醫腎系學,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pp.144~152, 1993.
2. 杜鎬京 : 東醫腎系學 研究, 서울, 慶熙大學校 出版局, pp.69~74, 1994.
3. 方藥中 외 : 實用中醫內科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pp.276~280, 1986.
4. 上海中醫學院 : 中醫內科學, 香洪, 中華商務聯合印刷有限公司, pp.111~112, 1975.
5. 김규동 : 동의내과학, 서울, 여강출판사, pp.309~310, 1992.
6. 張大寧 : 實用中醫腎病學, 北京, 中國醫藥科技出版社, pp.62~69, 1990.
7. 洪元植 :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p.264,267,277, 1985.
8. 巢元方 : 諸病源候論,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p.464~469, 1983.
9. 孫思邈 : 備急千金要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p.378~382, 1982.
10. 張子和 : 儒門事親, 台北, 族風出版社, pp.21~23, 1987.
11. 方廣 : 丹溪心法附餘, 서울, 大星文化社,

p.436, 1982.

12. 趙佶 외 : 聖濟總錄 上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p.1706~1721, 1962.
13. 李挺 : 醫學入門, 서울, 翰成社, pp.478~480, 1984.
14. 許俊 : 東醫寶鑑 1, 서울, 여강출판사, pp.451~459, 1994.
15. 王燾 : 外臺秘要(下), 서울, 成輔社, pp.697, 1975.
16. 李用粹 : 證治彙補, 台北, 族風出版社, pp.455~460, 1985.
17. 程國彭 : 具備醫學心悟, 臺北, 族風出版社, pp.194~195., 1958.
18. 張璐 : 張氏醫通, 서울, 一中社, pp.348~353, 1991.
19. 吳謙 : 醫宗金鑑(下), 서울, 翰林社, pp.69~71, 1976.
20. 龔廷賢 : 國譯萬病回春 上, 서울, 癸丑文化社, pp.243~244, 1977.
21. 李仲梓 : 醫宗必讀, 台南, 綜合出版社, p.312, 1976.
22. 林珮琴 : 類證治裁, 台北, 族風出版社, p.450, 1978.
23. 虞搏 : 醫學正傳, 서울, 成輔社, p.285, 1986.
24. 周命新 : 醫門寶鑑, 서울, 一中社, pp.278~280, 1980.
25. 徐學山 : 醫學門徑, 台北, 新文豐出版公司, pp.407~410, 1968.
26. 金定濟 외 : 東醫臨床要覽, 서울, 書苑堂, pp.134~136, 1977.
27. 鄧鐵濤 외 : 中醫診斷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p.594~596, 1987.